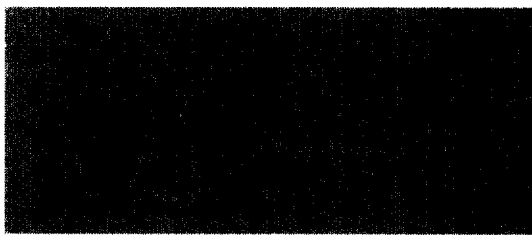


사파타혁명에 관한 소고: 지역성에 기초한 지방 혁명*

임상래(부산외대 스페인어과)



I. 들어가는 말: 사파타혁명과 멕시코혁명

1. 멕시코혁명과 사파타

멕시코혁명은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그 기간도 한 두 해의 일이 아니거니와 혁명을 만들어간 인물들도 만만치 않게 많다. 그 흐름을 대별하여 본다면 우선 혁명의 시작은 포르피리오 디아스의 엘리트주의적 과두정책에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면서 이미 잉태되어 있었다. 디아스가 7번째 대통령이 되려고 하자 자기 차례를 기다려 왔던 마데로는 재선 반대파를 결성한다. 당연히 디아스는 마데로를 투옥해 버리고 스스로를 당선자로 선언하는 무모함을 저지른다. 미국으로 피신한 마데로는 1910년 10월 텍사스의 산 안토니오에서 ‘산 루

* “이 논문은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KRF-99-003-B00041)

이스 포토시 강령'을 발표하여 멕시코혁명의 봉화를 올린다. 이를 계기로 북부에서는 파스쿠알 오로스코와 판초 비야가, 남부 모델로스에서는 에밀리아노 사파타(Emiliano Zapata)가 '토지와 자유(tierra y libertad)'를 모토로 반 디아스 투쟁을 전개하고 결국 이듬해 5월 디아스는 파리행 망명선에 오른다. 임시정부 하에서 총선이 실시되고 마데로는 멕시코의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이로서 구체제는 청산된다.

그러나 마데로 정부는 처음부터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사파타는 마데로 정부의 미진한 개혁에 불만을 품고 혁명에서 이탈하였고 오로스코 역시 마찬가지로였다. 대외적으로도 미국 정부는 마데로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 하에서 반혁명분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사령관으로 임명된 빅토리아노 우에르타는 오히려 이들과 미국 대사관저에서 밀약을 맺고 마데로를 암살한다. 우에르타가 대통령에 오르자 카란사, 사파타, 판초 비야, 오브레곤 등은 반우에르타 투쟁을 전개한다. 1914년 반란군은 멕시코 시티에 입성하고 우에르타는 쫓겨난다. 그러나 카란사가 혁명동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포하자 각 혁명세력간의 이합집산의 유희 투쟁이 재개된다. 마침내 비야, 오브레곤, 사파타는 카란사 정부를 불인정하고 카란사는 정부를 베라크루스로 옮긴다. 그러나 카란사는 오브레곤과 연합하여 비야군을 패배시키고 멕시코시티로 귀환한다. 카란사는 1917년 신혁명 헌법을 제정하고 1919년 사파타를 암살하고 차례로 정적들을 제거함으로써 내란적 혁명은 마무리된다.

중앙권력을 중심으로 한 멕시코혁명사에서 본다면 사파타혁명은 분명 '부분'의 혁명이다. 마데로가 혁명을 타종하였을 때 사파타는 여러 혁명 수령중의 한 사람일 뿐이었고 우에르타나 카란사가 멕시코시티의 권력을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마도 사파타가 전국적 인물로 부상한 것은 우에르타의 반동정부를 몰아내는 과정을 주도한 때와 이후 비야와 함께 카란사에 맞서는 강력한 혁명수장으로 등장했을 때이다. 그러나 '주인공'으로서의 역할도 잠시, 곧 이어 카란사의 간계에 휘말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함으로써 결코 승자가 되지 못하고 혁명 드라마에서 퇴장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사파타는 집권당이건 야당이건 모든 정치적 레토릭의 대명사이고 수많은 저항가들의 상징이다. 멕시코 전역에서 그의 이름을 딴 마을이나 거리는 수도 없으며 그를 추모하는 각종 행사는 연중 끊임없이 열리며 심지어 할리우드의 주인공으로 되살아나기도 했다. 이처럼 혁명의 전 과정에서 한번도 멕시코시티의 권좌에 앉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멕시코혁명의 진정한 영웅이며 멕시코의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인물로 간주된다.

이는 하나의 아이러니이다. 사파타와 그의 혁명은 모델로스에 머물렀지만 다른 어떤 혁명보다도 역사적이었고 국가적이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사파타혁명의 이원적이고 상반적인 성격을 토대로 그 실체를 추론하는 것이다. 특히 사파타혁명이 왜 ‘땅의 혁명’에 집착하였는지 그리고 왜 국가혁명으로의 길을 거부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즉 이 연구를 통해 사파타혁명의 지방혁명적이고 내부지향적인 성격의 동인과 그 발전 양태를 조망함으로써 멕시코 현대사에서 사파타혁명이 갖는 사적 의의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2. 사파타 혁명사 연구

사파타혁명에 대한 전형적(典型的)인 연구는 사파타혁명을 멕시코 혁명과의 유관관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 연구들은 사파타혁명을 멕시코혁명의 부분으로 인식하는 ‘혁명은 하나다’라는 전통적 시각과 멕시코혁명의 미시적·원심적 성격을 강조하는, 멕시코혁명의 다중성을 직시하는 최근의 경향으로 대별할 수 있다. ‘두꺼운’ 멕시코혁명사에서는 사파타혁명은 부분의 혁명이며 당연히 그 역할과 위치는 객체적이다. 주로 혁명 영웅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경제사적 연구에서 두드러지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다혁명론(many revolutions) 또는 ‘나뉘어진’ 혁명론에 근거한 역사 해석에서는 사파타혁명의 고유성과 독자성이 부각된다.

혁명의 이념 또는 사상에 대한 연구는 크게 전통적 관점과 이에 대한 비판으로 제시된 좌파적 시각으로 대별된다.¹⁾ 전자는 ‘pax

priista'의 지배이념, 즉 “혁명을 제도화하기 위해 통치한다”는 친 PRI 성향의 연구들인데 여기서는 사파타혁명을 포함하는 멕시코의 모든 혁명에서 멕시코성, 민족적 단합, 민중적 쫓기, 혁명의 영웅성과 서사성 등 혁명의 신화가 혁명사 해석의 키가 된다. 때때로 여기에는 위장된 또는 과장된 민족주의 논의가 개입되기도 한다. 제도혁명당의 '체제옹호론'을 비판하는 좌파의 혁명사 해석들은 'PRI의 혁명'을 비판하는데는 일치하지만 혁명의 동인이나 그에 따른 대안의 제시 등에서는 상이한 입장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사파타혁명의 이데올로기나 토지개혁과 자본주의적 발전 단계간의 관계 등이 주요 논점으로 다루어진다.

혁명주체를 규명하는 작업 역시 멕시코혁명 연구의 주요 유형의 하나이다. 멕시코혁명은 농지개혁을 추구한 농민 혁명이었다는 연구에서부터 대지주와 외국자본의 착취에 대항하는 농민 혁명이긴 했지만 그보다 적은 규모로 노동자 혁명적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다. 농민들은 반디아스 투쟁을 주도하지 않았고 따라서 소외된 중간계층의 일부가 농민-노동자와 연합하여 자신들의 정치참여를 봉쇄한 체제를 제거하기 위해 추진된 혁명이라는 다주체론적 시각도 있다(Meyer, 1976: 1204-1206). 이 연구들은 주로 사파타 봉기가 멕시코혁명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사파타를 포함한 혁명 주체들이 혁명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리고 이러한 작용과 관계들에서 나타나는 이념과 사상에 관한 것들이다.

반면 사파타혁명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43년까지 기다려야 했다. 사파타혁명만을 분석과 이해의 대상으로 다룬 연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대부분이 사파타 개인의 영웅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내용이 과장된 면이 많았고 그렇지 않다면 모델로스와 무관한 후대의 기록자들에 의해 기술되어 진실성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해 출판된 Jesús Sotelo Inclán의 *Raíz y Razón*

1) 이에 대한 자세한 참조는 이성형, “멕시코혁명사연구”, 『이베로아메리카연구』(창간호), 서울대 스페인중남미연구소, 1990. Heather Fowler-Salamini, “The Boom in Regional Studies Of The Mexican Revolution: Where Is It Leading?”,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Vol. 28, No.2).

*de Zapata*는 사파타 연구의 최초의 필독서가 되었다. 사료학적 가치의 1차 자료들을 해석하여 모렐로스 원주민공동체의 형성과 이후의 사파타혁명사를 훌륭히 기술해낸 이 연구는 사파타혁명 사학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 이후로 사파타 연구는 비로소 멕시코혁명에서 뛰어나올 수 있었다. John Womack의 고전 *Zapata y la Revolución Mexicana*는 사파타혁명 이론사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사파타혁명의 강령과 관련된 공식문서를 포함하는 방대한 1,2차 자료를 체계적으로 재해석하여 사파타혁명의 동인과 과정, 그리고 사파타혁명의 사적 의의를 정치하게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는 사파타혁명이 국가 혁명을 거부했다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모렐로스 농민들이 변화를 거부하였고 바로 그것 때문에 혁명을 하였다”(los campesinos que no querían cambiar y que, por eso mismo, hicieron una revolución)라고 혁명의 배경을 보았다. 이 연구의 특징은 사파타혁명의 연대기적 성격과 당대 모렐로스의 사회상이 기술된 미시사적 기술이 동시에 돋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출판된 지 꽤 오래 된 지금까지도 거의 모든 사파타 연구에서 권위를 갖게 되었다.

Womack 이후의 연구들을 전기, 전쟁사, 지방사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중 다수를 차지하는 전기에서 두드러지는 저작중의 하나는 Enrique Krauze의 연구이다. *La Biografía del Poder, Emiliano Zapata*는 풍부한 사진 자료와 함께 그의 생애를 시대별로 다룬 개론서이긴 하지만 당대의 혁명 영웅들과 사파타간의 공·사적(公·私的) 관계를 일차사료를 인용하여 함축적으로 기술하였다. 전쟁사로서의 사파타혁명에 대한 연구는 Francisco Pineda의 *La irrupción zapatista*가 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전쟁으로서의 사파타혁명의 시작은 아얄라 강령에서 비롯되었으며 또 투쟁의 추동력은 바로 마데로의 산 루이스 포토시 플랜의 불이행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파타혁명은 디아스-델라 바라-마데로-우에르타와의 일련의 무력 투쟁으로 공고화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사로서의 사파타혁명에 관한 최근의 연구중의 하나는 Alicia Hernández의 *Anenecuilco: memoria y vida de un*

*pueblo*이다. 그녀의 연구는 일종의 마을 연구로 주로 마을의 원로들과의 인터뷰와 고문서를 분석하여 사파타의 출생지 아네네꾸일꼬의 토지와 물의 독점을 사탕수수 산업의 확대에 맞추어 기술한 미시사적 연구이다.

이 글에선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을 기초로, 특히 Sotelo Inclán 이후의 사파타 연구들을 중심으로 사파타혁명이 갖는 지방적(地方的)이고 자폐적(自閉的) 성격이 멕시코혁명에서 어떠한 사적 의의를 갖는지를 재해석하고 나아가 사파타혁명의 실체를 이해하고자 한다.

II. 모렐로스 아시엔다체제의 완성

1. 토지집중의 완성

멕시코에서 대토지 소유제의 가장 극적인 경우는 모렐로스였다. 이곳의 역사는 정복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는데 테노츠티틀란을 정복한 코르테스는 이곳으로 돌아와 멕시코 최초의 사탕수수 아시엔다와 개인별장을 지었다. 모렐로스의 기후는 온화하였고 토지는 기름졌으니 이는 당연한 것이었다. 거기에다 수도와 인접한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 원주민 노동력도 풍부하여 식민초기부터 스페인인들의 관심과 이해의 대상이 되었다(INEGI: Morelos; Enciclopedia: Morelos).

식민통치가 진행되면서 멕시코의 사탕수수 농업은 날로 번창하였고 쿠바와 아프리카로부터 다수의 흑인노예들이 유입되었다. 모렐로스의 스페인인들은 식민 초기 주어진 메르센²⁾에만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사탕수수 생산을 위해 토지를 침탈하고 수로를 독점하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저항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16세기부터 시작된 사탕

2) 메르센(Merced)은 정복 초기 식민화를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였다. 본국의 식민화 계획은 세금 감면, 택지, 경작지, 공동토지(공동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등을 제공하고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토지 수여를 메르센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Konetzke, 1972: 34-42; Gibson, 1986: 269. 참조.

붉은 모델로스 토지문제의 도화선이 된 썸이었다.

식민초기 대지주에 대항한 토지분쟁은 간혹 원주민들에게 유리하게 판결되기도 했으나 식민통치가 공고화되면서 원주민들이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물론 스페인 왕실은 신대륙에서의 토지 소유와 사용에 대한 법을 제정하였지만 이는 식민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여기에다 애초부터 메르셀을 요청하는 원주민 공동체도 그리 많지 않았고 설사 메르셀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토지대장을 분실하거나 아시엔다에 토지를 대수롭지 않게 임대해주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원주민의 무지라기 보다는 토지에 대한 원주민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³⁾ 스페인인들은 토지를 점령하고 말뚝박고(당시 일반적인 소유권 행사 방법이였다) 농민들은 소송을 걸고 그 소송은 몇 년 또는 몇 십 년에 이르고 결국 제대로 해결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식민당국과 아시엔다간의 결탁으로 원주민들이 이 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사파타가 태어난 아네네꾸일코(Anenecuilco) 역시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1607년 루이스 데 벨라스코 부왕이 이곳 원주민들에게 메르셀을 인정하기도 했으나 이후 아시엔다의 확대로 사문화되어 이곳에서도 대농장의 토지 집중으로 원주민들의 경작은 날로 감소되었다(Krauze, 1987: 17-18, 29).

독립이 되어 스페인인들이 떠났지만 토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1840년대 모델로스 여러 지역에서 아시엔다를 상대로 토지반환투쟁이 벌어졌고 당시 쿠에르나바카 총독은 '여기서 땅이란 말은 스캔들의 돌이며 혼란의 박차이며 군중의 모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라고 회소 했을 정도였다(Krauze, 1987: 19, 30). 1854년에는 아네네꾸일

3) 이는 '깔뿌이(calpulli)'와 유관하다. 깔뿌이 구성원에게는 토지를 경작할 권리가 주어졌고 이 권리는 상속되었으나 일정기간 토지를 경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경작권이 넘겨졌다. 따라서 깔뿌이의 토지인 깔뿌야이(calpullalli)는 사유재산으로서의 토지가 아닌 이용권만 주어진 토지인 썸이었다. 신관과 귀족을 위한 토지도 사유재산이 아니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따라서 아즈텍 제국 내에서 기본적으로 사적인 토지소유가 인정되지 않았다(Aguirre, 1978: 180-182; Davies, 1995: 194-195). 이러한 전통은 식민시대에도 계속돼 원주민들은 문서의 형식을 갖춘 근대적인 법체계보다는 관습법적 토지관을 가지고 있었다.

꼬 주민들이 마을의 경계가 표시된 고문서를 들고 멕시코 시티에 대표단을 보내기도 했다(Hernández, 1991: 27, 57-58). 1856년에는 무력이 동원된 모렐로스 최초의 토지분쟁이 발생하여 스페인인들이 살해되어 정부군이 파견되기도 했다. 막시밀리아노 통치기(1864-1867)에도 토지분쟁은 끊이지 않았고 결국 막시밀리아노가 직접 이 지역을 방문하여 원주민 공동체에 메르셀을 인정하였으나 제2제정의 붕괴로 실현되지 않았다(Krauze, 1987: 20, 21, 31). 막시밀리아노가 폐위된 이듬해인 1868년 모렐로스는 연방의 독립 주가 되었다. 초대 주지사로 당선된 프란시스코 레이바(Francisco Leyva)가 원주민 토지의 개혁 방안을 발표하자 대농장이 선거 부정을 내세워 납세거부 투쟁을 전개하는 식의 조직적인 저항을 전개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Enciclopedia: Morelos; Hernández, 1991: 75).

디아스 시대의 토지정책은 두 가지 기본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하나는 식민화를 촉진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광대한 황무지를 개인들에게 소유케 하는 것이었다. 디아스의 식민화법들은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지원하여 이민자들을 멕시코에 정착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황무지 개간법은 개간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토지대를 장기 저리로 상환하는 것이 골자였다(Zavala, 1995: 126). 구획회사(*compañías deslindadoras*)법은 미경작 토지를 조사하여 구획하고 그 토지의 1/3을 회사가 소유하고 나머지는 매각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들 덕분에 디아스 통치는 멕시코 이민사의 새로운 장을 열긴 했지만 토지집중은 더욱 심화되었다. 멕시코 농민들은 아시엔다의 폐인이 되든지 아니면 산 속으로 쫓겨 들어가 생존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巢山靖司, 1985: 83).

또 이러한 의도들은 경제적 투기를 조장하기도 했다. 황무지 개간법은 원래 토지소유권이 부재한 미경작지에 한정되어 있었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토지대를 지불하고 나중에는 작물을 경작하든지 아니면 목축을 해야 했고 무엇보다도 식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구획법에서도 토지소유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런 모든 제한들이 사라졌다. 따라서 도시에 거주하는 당대의 정치가, 자본

가, 법률인들이 이들 토지의 주인으로 등기되었다. 결국 토지의 생산성 향상은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들었다(Zavala, 1995: 127). 따라서 디아스 붕괴 이후 진행된 혁명에서 토지문제가 식민화라든지 자본주의적 운영이란 측면보다 토지의 환원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이었다. 이 시기에 제정된 다른 법들(예를 들어 수자원이용법)도 아시엔다의 확대에 기여했을 뿐이었다.

디아스 정부의 근대화 정책의 간판 사업은 철도였는데 이 역시 모렐로스의 토지집중을 확대시키는 촉매가 되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횡단철도에서 모렐로스는 수도와 태평양 연안의 아카풀코를 잇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다. 멕시코시티-베라쿠르스 철도가 1873년 완성되고 1883년 모렐로스의 꾸아우틀라와 야우떼펙을 통과하는 철도가 부설되었다. 철로를 따라 설탕생산을 증대시킬 기술들이 들어왔고 물자의 이동이 원활해져 모렐로스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였다. 디아스 정부 마지막 모렐로스 주지사 빠블로 에스칸돈, 전 주지사 마누엘 알라르곤 그리고 모렐로스의 실력자이자 디아스의 사위인 아그나시오 델 라 토레의 아시엔다들은 모렐로스 경제를 대표하고 있었다. 모렐로스의 정치력은 이제 경제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되었다. 1870-1909년 동안 모렐로스의 설탕생산은 5배, 면적은 3배가 늘어났다. 모렐로스의 24개 제당공장은 멕시코 전체 설탕생산의 1/3을 담당하였고 이는 하와이-푸에르토리코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었다. 이 기간 모렐로스의 사탕수수 아시엔다에는 증기제당기도 도입되어 설탕생산은 급증하였다. 수로시설이 완비되었고 주정부의 세수입도 크게 늘었다. 멈추면 넘어지는 외발 자전거처럼 모렐로스의 아시엔다는 더 많은 토지와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근대화'와 '토지요구'의 대립은 심각한 사회불기를 촉발시킬 듯 했다(Pineda, 1997: 24-25; Krauze, 1987: 26).

혁명 직전이 되면 디아스 자신도 무의식적으로 모렐로스야말로 제일 먼저 자유를 누려야할 상황에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토지문제는 극적인 상황이 된다. 알라르곤이 죽고 새 주지사를 뽑는 선거가 임박하자 아센다도들은 디아스의 경호대장이기도 했던 농장주 출신에

스칸돈을 내세웠다. 에스칸돈 가문은 모렐로스의 대부호가문이었으며 모렐로스 착취 역사의 주인공이었다. 주민들은 프란시스코 레이바의 아들이면서 디아스 정부에 대해 비교적 독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던 빠뜨리시오 레이바를 지지하였다. 당시 레이바의 선거 참모에는 사파타는 물론이고 오델리오 몬파뇨 등 훗날 사파타혁명의 주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Krauze, 1987: 27). 모렐로스 역사상 가장 치사한 방법으로 1909년 3월 주지사에 오른 에스칸돈은 아시엔다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평가법을 발표하였다. 당시 28개 아시엔다가 모렐로스 전체 토지의 77%를 소유하고 있었고 100개 이상의 원주민 마을 토지는 겨우 20%이었고 나머지 3%는 중농규모의 자유농인 란초(rancho)에 속했다⁴⁾(Cumberland, 1988: 199; Krauze, 1987: 47). 사파타는 이에 대한 시정을 주지사에게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에스칸돈은 디아스 정부 마지막 주지사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새롭게 형성된 국내·외의 농산물 시장은 대농장의 토지 확대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특히 모렐로스의 사탕수수는 유카탄의 에네켄과 함께 시장을 지향하는 상업농을 발전시켜 원주민 공동체의 붕괴를 야기시킨 가장 극적인 경우가 되었다.

식민 초기 모렐로스의 토지 투쟁이 뺏기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면 식민 통치가 진행되면서는 뺏긴 것을 되찾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독립이후가 모렐로스 토지집중의 심화기라 한다면 디아스 통치기는 아시엔다에 의한 토지독점이 완성된 기간이 된 셈이었다.

2. 노동구조의 변화와 전통사회의 해체

스페인 본국에 의해 원주민 노동력의 강제사용이 금지되자 아시엔

4) 혁명 직전 모렐로스 총 인구의 8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중 0.5%의 가구만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오아하카, 멕시코주와 함께 가장 높은 수치였다(박구병, 1994: 8).

다가 고안해낸 새로운 방법은 'peones acasillados'였다. 페온(peón)의 어원적 의미는 일급(日給) 일꾼이나 멕시코에서는 생계를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대농장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또는 현물)을 받는 일반적인 농업노동자를 총칭한다. 빗으로 인해 대농장내의 숙소(casilla)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peones acasillados라고 불렀다. 이들은 빗에 의해 대농장에 예속된 존재들로서 경제외적 강제에 놓이게 된 일종의 채무노예인 셈이었다. 식민말기가 되면 이들은 모렐로스를 포함하는 멕시코 중남부 농촌의 주요 노동력을 구성하게 되고 이는 디아스 통치기까지 이어졌다.

이들과 함께 낱품팔이와 소작농적 성격을 가진 일시 노동자들도 중요한 노동력이었다. 김을 때는 4월과 수확하는 8월에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력을 구하기도 했고 또는 대농장의 일정 토지를 경작케 하고 대신 파종과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대농장일을 하는 형태도 있었다. 특히 사탕수수 농장의 경우는 수확기에 일시적으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농장관리인(mayordomo)이 다른 지방에서 일꾼을 모으기도 했다. 그리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모렐로스를 포함하는 멕시코 중남부의 또 다른 노동력은 소작농(arendatario)과 계약농(aparcerero)이었다. 소작농은 대농장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고 일정 액의 지대를 지불하는 방식이었다. 계약농은 대농장과 의 약정에 의해 대농장의 토지를 경작하고 그 대가로 수확물의 일부를 받았다(Florescano, 1980: 131, 134; Katz, 1992: 56). 이들 역시 대농장에 예속되어 있었다.

설탕의 상륙은 모렐로스 사회의 인종 구분과 노동 분업간의 관계를 정하게 만들었다. 16세기 사탕수수 아시엔다가 세워지면서 농장에서 일하는 자와 제당소에서 일하는 사람간의 구분이 시작됐고 제당공장내에서 스페인인, 메스티조, 원주민의 인종구분은 노동분업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 원주민의 제당소 노동을 금지하는 부왕령이 발표되기도 했을 정도였다. 독립직전이 되면 이러한 구분은 더욱 세분화되어, 제당소의 경우, 맡겨진 작업(가마솥을 다루는 사람, 원심분리기를 다루는 사람, 압축기를 다루는 사람 식의)에 따른 구분이 마

치 사회계층처럼 세습되기도 했다. 임금은 타지역에 비해 조금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사탕수수 농업의 번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당소내의 높은 노동강도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다. 폐온의 대부분은 씨 뿌리고 경작하는 자들이었고 이들 위에는 수로관리인, 창고관리인 등이 있었다(Pineda, 1997: 30-32).

멕시코시티와 가깝다는 것은 모렐로스 전통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는 충분한 요인이 되었다. 특히 멕시코시티의 상인과 자본가들의 관심과 이해가 커지고 이에 따라 철도가 부설되면서 산과 강으로만 경계되어진 원주민 공동체의 생태와 생활양식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모렐로스는 철도로 외부와 견고하게 연결되었고 주내의 대농장들은 협궤철도로 거미줄처럼 이어졌다. 당연히 철로는 공동체를 관통하거나 경작지의 일부를 가로질러 못쓰게 만들기 일쑤였다. 또 철도를 건설하고 철로를 따라 전신주를 세우는 외지 노동자들과 원주민간의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토착 사회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모렐로스의 농민들에게 철도 건설은 하나의 공포이자 재앙이었고 이로 인한 농민들의 위기의식은 빈번하게 철도 습격 사건으로 이어졌다.

대농장이 거대화·부유화되면서 대농장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모렐로스내의 사회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디아스 통치를 거치면서 모렐로스 사회는 날로 부유해지고 확대되는 소수의 대농장과 토지를 잃고 더욱 빈곤해진 다수의 농민들로 양극화되어갔다. 물론 대농장도 아니고 폐온도 아닌 소위 ‘농촌 중류층’이 있긴 했지만 이들 중 다수는 대농장 혹은 지방권력과 협조관계에 있었다. 목수나 대장장이 같은 장인계층, 서기, 은행가 같은 전문직종, 대농장과 거래를 하는 상인들, 대농장의 관리인들은 대농장 밑에서 견고한 중류층을 형성하였다. 대농장은 이제 모렐로스 사회계층구조의 정점에 군림하였고 더 나아가 그들 스스로 지방의 통치자가 되었다. 독립이후 디아스 통치에 이르는 모렐로스의 정치사는 대농장의 정치 독점을 서술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에스칸돈과 알라르곤 가문(家門)의 역사는 바로 모렐로스 통치사와 일치

하는 것이었다. 모델로스는 이제 '아시엔다체제'에 다름 아니었다.⁵⁾

사탕수수 농업은 대농장의 확대와 원주민 토착사회의 붕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사탕수수 10에서 설탕 1이 나올 정도로 사탕수수 경작은 여러 과정을 거치는 제조업이기도 했다. 특히 설탕을 추출하기 위해선 빨감의 공급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대농장은 이를 위한 광대한 임야를 필요로 하였다. 목축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탕수수 경작은 물론이거니와 수확물을 운반하고 압축기를 돌리기 위해 말의 인력(引力)은 필수적이었고 이를 위해 아시엔다에서 가장 넓은 땅은 목축을 위한 것이었다. 또 이전의 관개수로를 대농장에 맞게 건설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토지가 필요하였다. 1800년대 말 때 께스끼뎡고 마을은 비스따에르모사 대농장이 수로를 변경하여 교회 첨탑만이 보이는 저수지로 변하고 말았다(Pineda, 1997: 29-30). 대농장 주변으로 쫓겨나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던 원주민 공동체는 토지에 이어 산과 물마저도 대농장에 빼앗기고 그 해체의 기로에 서 있었다.

아시엔다의 확대에 대해 멕시코 원주민들은 취할 선택은 그들에 예측되거나 아니면 이들을 피해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시엔다의 토지침탈에 집단으로 대응하는 길을 택하기도 했다. 특히 공동체의 전통을 지키려는 의지, 즉 공동으로 생산하고 지도자인 카시케를 중심으로 종교행사를 거행하며 '원주민용' 스페인어를 지키려는 노력들은 지역적으로 북부보다는 정북 이전부터의 공동체적 전통이 강하였던 모델로스를 포함하는 중남부 지역에서 더 강했다(巢山靖司, 1985: 84-85).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과 시도들은 모델로스의 거대한 아시엔다체

5) 물론 대농장과 디아스 체제에 반기를 드는 경우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었다. 자영농, 교사, 기술자들 중 자유-계몽적 인물들이 있었다. 그들의 대표격이 바로 빠뜨리시오 레이바였다. 그러나 이들과 농민간의 연대는 레이바가 훗날 '건강상의 이유'로 사파타즘에 합류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 견고하지 못했다(Pineda, 1997: 28-29). 좀더 적극적으로 모델로스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 농민 지도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는 바로 사파타였다. 아네네꾸일코 주민들이 그를 마을의 지도자로 선출했을 때 그는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농민이었다(Katz, 1992: 53-54). 그러나 이들은 예외적인 소수였다.

제와 비교할 때 참으로 미약한 것이었다. 여기에다 원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 특히 토지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식민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원주민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유카탄에서 카스타의 반란(1847-55)이 있었을 때도 그러했고 디아스 정부 하에서도 원주민들의 청원은 진압의 대상일 뿐이었다. 정부는 원주민반란에 대해 추방과 사민(徙民)으로 대응하였는데 반란을 일으킨 농민들은 주로 유카탄과 키타나로주의 에네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어 노예와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모렐로스도 다시 보내져 이들이 훗날 사파타군에 참여하기도 했다(Pineda, 1997: 52-53). 디아스 통치의 시대 정신이었던 '질서와 진보'란 모토는 '위로부터의 안정'만을 기조로 하고 있던 바 이를 해치는 어떠한 요구도 수용될 수 없었다.

아시엔다에 대한 원주민들의 저항은 주로 토지침탈에 대한 것이었지 자본에 대한 노동자로서의 저항은 소수에 불과했다. 비록 이들이 공동체를 벗어나 농업노동자로 생활하긴 했지만 아직 이들에게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대한 인식은 준비되지 않았던 상태였고 대신 땅에 대한 원초적 요구가 이를 대신하고 있었다.

혁명 직전 모렐로스는 완전한 아시엔다 체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이들은 토지와 노동력은 물론이고 지방정부까지도 장악하였다. 대농장은 주정부의 재정을 전담할 정도였는데 1894년경 이미 모렐로스 예산의 75%는 사탕수수 대농장에서 나왔다.

모렐로스의 아시엔다 체제를 거부하려는 몸짓은 이런 토양에서 마련되고 있었다. 따라서 혁명의 싹은 사파타 이전부터 뿌리내리고 있었고 마데로의 선언이 없었더라도 모렐로스의 혁명은 필연적이었을 것이다. 혁명 직전 모렐로스 아시엔다는 전체 토지의 3/4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미 모렐로스는 혁명의 종을 치고 있었다.

III. 사파타와 사파타혁명

1. 사파타와 사파티스트

모렐로스 혁명은 사파타혁명이었다. 이는 사파타와 농민군간의 완전한 일체화의 산물이었다. 즉 농민군은 사파타였고 사파타 자신은 바로 농민군이었다. Womack이 얘기한 것처럼 사파타가 농민군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파타를 만들어 낸 것이었다. 모렐로스에서 농민과 사파타는 일종의 이형동체(異形同體)였다.

사파타의 성장은 바로 모렐로스 농민으로서였다. 그는 1879년 8월 8일 모렐로스의 아네네꾸일꼬에서 10 형제 중 9째로 태어났다. 부모 모두 모렐로스의 전형적인 농민이었고 잠시 마을 학교에서 멕시코 역사, 셈하기, 읽기, 쓰기 등을 배웠다. 나이가 들면서 그는 모렐로스의 다른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농사일에 매달렸고 16세에 부모를 잃었지만 그리 가난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Krauze, 1987: 40). 청년이 된 사파타는 마을사람들과 대농장간의 대립과 송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다가 27세 되던 해 미래의 혁명지도자로서 중대한 계기를 맞게 된다. 바로 이웃 아얄라 마을의 빠블로 토레스 부르고스(Pablo Torres Burgos)와의 조우였다. 매사에 의욕적이었던 청년 사파타는 그를 통해 반디아스 성향의 신문들을 접하게 되었다. 또 전직 교사였던 오텔리오 몬타뇨(Otilio Montaño)를 통해 유럽의 급진사상에 접하게 되었다(Krauze, 1987: 44-45). 토레스 부르고스, 몬타뇨는 이후 사파타와 함께 모렐로스 혁명을 주도하였다. 이들과의 친교는 사파타가 모렐로스의 현실을 인식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909년 아네네꾸일꼬에서도 주지사 선거를 둘러싼 혼란과 혁명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9월 12일 일요일 아네네꾸일꼬 주민들은 사파타를 마을의 자치-방어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사파타가 촌장에 해당하는 마을 위원장이 된 것은 향후 사파타와 사파티스트간의 관계를 가늠하는데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겨우 서른살의 나이로 마을의 공식적인 리더가 된 것은 그의 카리스마와 지도력에 대한 주

민들의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들의 견고한 신뢰는 바로 사파타의 투쟁경력과 열정에 대한 반증이었음을 물론이거니와 마을에서 대대로 내려온 사파타 가계에 대한 신임 때문이기도 했다.

사파타가 평범한 농민의 아들에서 모렐로스의 혁명지도자가 된 배경에는 '차로(charro)'라는 멕시코적인 문화 전통과 인간적 개성을 간과할 수 없다. 왜냐면 차로는 이들이 그리던 이상적인 남성상이었기 때문이었다. 인간 사파타는 바로 그런 사나이였다. 차로 중의 차로였던 사파타에게 불굴의 혁명의지는 어찌면 '차로다움'의 또 다른 발현이었다. 사파타의 인간적 매력과 혁명 카리스마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 인간 사파타는 모렐로스의 보통 남정네와 별반 다르지 않았고 그래서 그의 카리스마는 그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동류의식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가 농민군을 지도한다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다. 그들에게 디아스 정부군의 유럽식 제복과 근엄한 지휘관은 필요하지 않았고 오직 슴브레로(멕시코 모자)에 흰색 바지저고리에 입고 가죽신 우아라체(huarache)를 신은 농민군으로 충분했다.

사료의 부족과 사파타군의 비공식성으로 인해 사파타혁명군의 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혁명 초기 5,000명의 사파타군이 쿠에르나바카를 점령하였고 1914년 사파타가 중남부해방군을 이끌고 멕시코시티에 입성했을 때 병력이 약 2만 5,000명 정도였다는 기록으로 봐 대략 수천에서 최대 3만명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30-300명의 단위로 나누어 전쟁을 수행하였고 각각의 지도자들이 비교적 독자성을 가지고 부대를 인솔하였다. 부대 규모가 일정하지 않은 것과 각 부대가 독자적이었던 것은 마을 단위로 부대가 조직되었기 때문이었다.

사파타군의 기본적 투쟁 방식은 게릴라 전술이었다. 다수가 지원병으로 이루어진 사파타군은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다가 정부군과 전쟁이 일어나면 전투에 참여하고 전투가 끝나면 다시 농민으로 돌아오는 식이었다. 이들은 정규전을 피하고 동시다발적 게릴라 전술을 구사하였다.⁶⁾ 게릴라 전술에는 철로와 전신, 전화망을 공격하는 것

이 포함되었다. 이는 정부군의 증원을 지체시키고 지휘부를 무력화시키는데 결정적이었다. 철도역이 모렐로스 혁명군에 의해 공격되었고 교량이 파괴되었고 주요도시간의 도로가 점령되었다. 그러나 제당소 설비는 여기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19세기 중반 불란서와 영국의 농민-노동자 폭동이 자신을 착취하던 기계를 파괴하였던 것과는 대조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Pineda, 1997: 88-89).

1914-15년 동안 사파타혁명이 모렐로스에서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 봉급이 지급되기도 했지만 그 외의 기간동안 농민군의 물자조달은 분권적이었다. 식량, 무기, 탄약, 말 등은 주로 대농장과 관공서를 공격하고 얻은 전리품과 정부군에게 노획한 것으로 충당되었다. 여기에다 농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보태졌다. 비록 전비의 충당이 모렐로스 농민들의 자발적 협조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한때 전쟁세를 징수하기도 했다. 물론 그 대상은 농민이 아닌 대농장이었다.

사파타군의 또 다른 특징중의 하나는 엄정한 군율이었다. 특히 민간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군율을 지켰다. 1915년 멕시코시티 시민들은 사파타군이 대통령궁을 침입하거나 부녀자를 범하지 않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먹고 마실 것을 청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허용되지 않았다. 이는 일종의 배신이자 반역이었고 이는 바로 마테로의 배반에서 시작된 사파타혁명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사파타군의 최대 약점은 무기와 병력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파타군의 화력은 정부군으로부터 노획한 것과 때때로 미국 암거래상으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충당되었다. 당연히 복부의 주들보다 내륙주인 모렐로스는 무기를 구입하는데 불리하였고 미국정부가 무기 밀매를 엄격히 통제하면서 사정은 더욱 어려워 졌다(Johnson, 1970:

-
- 6) 사파타혁명의 게릴라전은 정부군 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디아스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군대는 전문화되고 잘 무장되어 있었으나 조직은 다분히 분권적이었다. Pineda(115)에 의하면, 당시 디아스 정부는 지방의 반란이나 폭동을 제압하기 위해 카시케나 지방정부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디아스 체제의 군사력은 지방군과 중앙군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지방군이 지역의 일을 수습할 수 없는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지원군이 보내지는 형국이었다. 따라서 정부군에 대한 사파타군의 동시다발적 공격은 효율적인 전술이었다.

105). 아얄라 강령에서 오로스코를 혁명지도자로 추대했을 때나 비야와의 연합이 성립되었을 때나 사파타군이 기대했던 것은 이들로부터 부족한 무기를 지원 받는 것이었다. 정부군 기차를 공격할 경우, 사파타군 병사들의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는 적군이 버리고 간 병기를 노획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병력 동원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농민들의 자원으로 구성된 사파타군은 농번기, 특히 파종기에 병력을 조직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 때때로 농번기에 탄약까지 부족할 경우에는 사파타군은 제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다.

사파타군과 농민간의 관계는 상호적이었고 협조적이었고 자발적이었다. 농민들은 식량과 군용지를 제공했으며 특히 마을에서 전해주는 정보는 매우 유용했다. 모렐로스의 마을(pueblo)과 군대(ejército)는 하나였기 때문에 농민들의 협조는 당연한 것이었다. 마을의 지도자와 사파타군의 지휘관은 그들 자신이거나 아니면 친척이거나 오랜 친구들이었다. 사파타 자신도 아네네꾸일꼬의 지도자인 동시에 모렐로스 혁명군의 사령관이었다. 혁명전쟁이 경과하면서 일부 직업군인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사파타군은 제한된 군사훈련을 받고 필요시 그들의 마을과 이웃을 방어하기 위해 동원되는 일종의 민병대이자 향토군이었고 동시에 의용병이었다. 결국 지휘부와 개개 병사는 하나일 수밖에 없었고 사파타와 농민군간의 관계는 절대적인 신임에 기초하고 있었다.

2. 사파타의 혁명사상

멕시코혁명에서 중심점이 되었던 사상이나 이념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다. 이는 각 혁명세력의 이념적 준비가 아직까지 미약했었다는 점과 혁명에 참여한 세력들이 다양하고 이질적이어서 주체가 될 수 있었던 이념이나 사상의 정립이 불가능했던 측면 때문일 것이다.

이념으로서의 사파티즘 역시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혁명 동료들 중에는 뛰어난 지략과 안목을 가진 인물들이 있었다. 사파타

혁명 초기 아알라 강령의 작성자로 알려진 몬파뇨와 기자출신의 빠울리노 마르띠네스, 마누엘 팸라폭스 등이 지도부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이론가라기 보다는 행동가들이었다. 이들이 전사하거나 카란사의 회유로 혁명에서 이탈하자 안토니오 디아스 소또 이 가마(Antonio Díaz Soto y Gama)와 힐다르도 마가냐(Gildardo Magaña)가 사파타혁명의 이데올로기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이 두 인물은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가진 혁명가였다. 회계사 출신의 마가냐는 처음에는 마데로 혁명에 참여했으나 이후 아알라 강령에 동조하여 사파타혁명에서 온건파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는 비야와의 협상과 오브레곤과의 연대를 추진하였고 사파타가 암살된 후 농민군을 이끌고 반 카란사 투쟁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소또 이 가마는 이와 달랐다. 그는 사파타혁명내에서 비타협적이고 원칙주의적인 혁명노선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소또 이 가마는 1914년 우에르타정부에 의해 '세계노동자의 집(COM)'이란 무정부노동조주의적 노동조직이 해산되고 사파티즘에 합류하였다. COM은 노동운동의 정치참여를 배격하고 노사관계에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비정치적 직접투쟁'을 기본이념으로 노동자 계몽 교육을 펼치면서 파업과 태업을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COM이 불법화되자 지도부는 양분되어 일부는 대도시에 남아 지하활동을 벌이다 카란사정부에 참여하여 노동자군대인 적색대대를 창설하였고 소또 이 가마 등 나머지 노동자들은 사파타진영에 합류하였다. 사파타는 이들을 받아들여 주요 정책에 임명하였는데 아알라 강령의 '개혁, 정의, 자유, 법'이라는 모토가 '토지와 자유'로 대체된 것도 이들에 의해서였다(Lim, 1991: 51-53).

무정부주의적 급진사상의 소유자였던 소또 이 가마가 사파티즘에 합류한 것은 양자간에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농민들의 봉기를 자연적(또는 원시적) 무정부주의(natural anarchism)라고 규정하였다. 농민들의 이상향은 자유마을이며 따라서 국가는 농민들에게 부정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였다. 그는 혁명의 진로는 현 체제를 가족적-내부적 성격에 기초한 자신들(원주민) 고유의 사회

구조와 질서로 대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Krauze, 1987: 77). 무정부주의가 19세기말부터 멕시코 노동운동과 플로레스 마곤(Flores Magón) 등의 자유주의적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가장 중심적인 급진사상중의 하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파티즘에서 무정부주의적 가치를 찾으려 했던 소또 이 가마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무정부주의에 대한 사파타의 이해는 그리 깊은 것이 아니었다. 차라리 사파타는 정교하지 못한 그리고 태생적인 비권력주의자였다. Krauze에 의하면, 비야는 야만적이었고 쾌활하였고 사파타는 과묵하고 신비적이고 영감적이었고 사파타는 비야와는 달리 권좌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권력이란 것에 일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권력이란 것이 욕심을 부추기기 때문에 불태워 버려야 한다고 얘기했을 정도였다(1987: 79-81). 사파타에게 혁명은 땅 없는 농민을 위해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었지 정치권력의 획득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파타에게 중앙권력은 봉기의 목표가 아니었다. 실제로 그는 단 한번도 ‘멕시코시티’를 탐내지 않았다. 카란사의 밀사가 사파타에게 회담을 제의했을 때 여전히 멕시코시티는 “정치꾼들의 소굴(nido de políticos)이며 음모의 온상(foco de intrigas)”(Womack, 1969: 202)일 뿐이었다. ‘땅과 자유’라는 사파티즘의 엠블렘에서 자유는 누구에게나 그러했듯이 혁명의 수석어였고 그것은 땅에서 나온다고 믿었다.

기실 그의 ‘땅’은 아얄라 플랜 이전부터였다. 봉기의 이유를 물으면 그는 항상 부하를 시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양철로 조잡하게 만들어진 문서함을 가지고 오게 했다. 부왕으로부터, 그리고 막시밀리안노로부터 받은 메르셀이 명시된 고문서는 그의 투쟁을 설명해주는 이유였다. 그에게 그에게 땅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절대 명제였다. 그들에게 토지는 그들을 낳아주고 지켜주는 어머니이며 또 다른 이름의 조국이였다. 땅은 시작이자 끝이었고 시간의 신비함을 간직한 어머니였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었고 조상들의 영원의 쉼터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파타는 어느 곳도 지향하지 않았다. 머물고만 있었다. 그의 의도는 진보를 향해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진보로 향해진 문을 닫는 것이었다. 산과 나무가 있는 인간적인 생태의 신비스런 지도를 복원하는 것이었다”(Krauze, 1987: 99-100). 사파타는 모렐로스를 떠나지 않았다. 그의 비전은 아버지처럼 역동적이고 자발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어머니처럼 수동적이고 영적이었다. 그는 밖으로 향하지 않고 오히려 잃어버린 길을 찾기 위해 내향적으로 닫혀진 길을 걸었다.

멕시코 교회의 긴 역사를 비추어 볼 때 멕시코혁명이 교회와 충돌하리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다. 성직자들이 살해되거나 교회가 파괴되는 것은 다반사였고 특히 비야군 지역에서 교회재산은 전리품이 되었고 성직자는 몸값을 내지 않으면 죽음 목숨이나 마찬가지로였다(백종국, 2000: 438-439). 그러나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사파타군이었다. 기실 멕시코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멕시코인들의 일상과 사고를 강건하게 지배해온 것은 카톨릭이었다. 비록 제도와 기구로서의 교회는 또 다른 권력자이긴 했지만 믿음체계로서의 카톨릭은 거의 모든 멕시코인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였다. 사파타와 그의 혁명군이 혁명기간 내내 카톨릭에 절대적 믿음을 보였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사파타 농민군은 과달루페 성모상을 앞세웠고 진군했고 모자에는 수호 성인들을 표하였다. 사파타군 지역에서 성직자들은 우대되었고 그 중 일부는 혁명의 동조자가 되었다. 노동자들이 ‘성모상을 부적처럼 목에 두르고 마치 노예처럼 성직자에게 복종하는 무지한 교도’들이라고 사파타 농민군을 비난한 것은 이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Ariaza, 1963: 85). 과달루페 성모는 멕시코인들의 고난한 일상을 위로해주는 성스러운 어머니이자 모든 멕시코인들의 영혼의 대변자이다. 사파티스트 역시 그녀에게서 영적 위안을 받고자 했다. 사파타군의 엄정한 규율은 종교적 금욕주의나 원리주의와 중첩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반역죄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여 이는 마치 이단에 대한 철저한 웅징과 대비되어 사파타의 대부까지도 사형에 처해졌다.

사파타혁명에서 어머니는 분명 혁명의 정신적 추동력이었다. 그들에게 땅과 과달루페는 모두 어머니였다. 그러나 그것은 둘이 아닌

하나의 어머니였다. 과달루페 성모는 바로 또난칭(Tonantzin)의 또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다. 메소아메리카의 신은 때와 장소에 따라 그 성격이나 역할을 달리하는데 또난칭은 ‘모든 신의 어머니’인 떼떼오이난(Teteoínan)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하며 ‘태양의 신’인 또나띠우(Tonatiuh)의 부인이라고도 하나 그 신성은 ‘우리의 어머니’ 또는 ‘대지와 달의 여신’이었다(Soustelle, 1992: 54, 179). 떼떼약 언덕에 있었던 또난칭의 성소는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였던 어머니 신의 사원이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과달루페 성모가 발현함으로써 성모와 또난칭의 이미지가 ‘오버랩’되어 멕시코인의 일상에 자리잡게 되었다. 결국 사파타혁명은 어머니를 갈구하는 ‘아들들의 혁명’이기도 한 셈이었다.

3. 아알라 강령

아알라 강령은 마테로 혁명의 부정인 동시에 사파타혁명의 시작이었다. 마테로가 대통령에 취임한 것은 1911년 11월 6일이었고 아알라 플랜은 11월 25일 발표되었다. 33년의 독재가 끝 난지 단 20일만에 사파타가 봉기한 것은 하나의 죄악⁷⁾이었다. 그러나 이 죄악은 사파타의 조급함도 사파타혁명의 위선도 아니었다. 산 루이스 포토시 강령에서 아알라 강령으로는 13개월은 바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다.

멕시코혁명의 공식적인 시작은 마테로의 산 루이스 포토시 강령(Plan de San Luis Potosí)이었다. 마테로는 텍사스의 산 안토니오에서 10월 6일 총 11조 4항의 혁명 강령을 발표하는데 모델로스 농민들을 마테로 혁명에 참가시킨 것은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토지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이고 비도덕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보상과 함께 토지를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 만약 제3자에게 토지가 넘어갔을 경우, 이에 상응한 보상을 해야 한

7) Luis González는 “우에르타가 마테로를 살해한 것은 2년이나 지난 후였지만 사파타는 (겨우) 20일만에 마테로를 부정함으로써 혁명의 혼란을 가중시킨 재평가되어야 할 인물”이라고 지적하였다. “El crimen de Zapata”, *Nexos*, no. 285(2001, 9), 62-63.

다”는 제3조였다.⁸⁾

또레스 부르고스가 토지문제에 대한 마데로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사파타와 혁명 동지들은 1911년 3월 10일 디아스 정부군에 대한 전투를 개시하였다. 또레스 부르고스가 전사하여 사파타가 지휘하는 혁명군을 3달도 되지 않아 모렐로스의 주요도시는 물론이고 인접한 게레로와 푸에블라 경계지역을 점령하였다. 결국 디아스는 5월의 마지막날 파리로 망명하고 델 라 바라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사파타-마데로 연합의 최초 위기는 임시정부가 아시엔다를 옹호하던 까레온(Carreón)을 임시 주지사로 임명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파타는 마데로에게 토지개혁을 요구하였고 마데로는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파타를 모렐로스 경찰국장에 임명하면서 무장해제를 주장했다. 결국 사파타는 마데로의 요구를 받아들여 병사들을 마을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그는 임시정부와 마데로가 자신을 비난하는 세력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파타의 우려는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었다. 설탕생산자협회는 모렐로스 혁명군이 무장을 해제하지 않는다고 마데로에게 항의서한을 보냈고 ‘모렐로스의 후예들(Hijos de Morelos)’이라는 단체는 공개적인 반 사파타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멕시코시티의 유력지 ‘El Imparcial’ 지를 동원하여 모렐로스가 치안부재의 상태에 있다고 호도하는 데 열을 올렸다. 실제로 일부 농민들이 아시엔다를 습격하는 일도 있었으나 이는 사파타와 의지와는 무관한 일들이었다. 오히려 이들이 주장하는 사파타군의 무장해제는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었다(Cumberland, 1988: 202). 반사파타 세력의 반격은 모략뿐만이 아니라 암살, 투옥, 부정 등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파타는 “자유선거에 의해 주지사가 선출되면 법, 즉 산 루이스 포토시 강령에 의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마데로의 권고에 따라 일부 호위병력만 남긴 채 농민군을 완전 무장해제 시키는데 동의하였다. 그는 자신의 봉기는 순수한 애국심의 발로였으며 대농장의 비난은 부당하며 마데로를 신임

8) 혁명 강령 전문은 Silva Herzog, 1989: 162-168 참조.

하기 때문에 정부의 무장해제를 받아들여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발표했다(Womack, 1969: 98-99).

그러나 임시정부는 우에르타가 이끄는 정부군을 모델로스에 출동시켰다. 치안유지를 내세웠지만 실제 목표는 사파타군의 완전무장해제, 즉 해체였다. 사파타는 임시정부에 새로운 주지사의 임명과 토지개혁을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군대를 재조직하였다. 영민한 지도자 마데로는 사파타가 그리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가능하면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정부에 권고하였다. 더욱이 당시 임시 정부의 병력은 사파타군을 일시에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마데로의 조언에 따라 정부는 우에르타에게 진군을 멈출 것을 명령했으나 벌써 정부군은 사파타군에 근접해 있었다(Ulloa, 1988: 1086-1087). 모델로스에는 다시 전운이 감돌았다.

기실 마데로는 혁명을 현실로 옮기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힘, 즉 충분한 무력을 갖고 있지 못했고 따라서 그는 혁명의 정당성을 설파하면서 상이한 혁명세력들을 조정하면서 아슬아슬하게 혁명을 이끌고 있는 형국이었다. 여기에다 아직까지도 도처에 반혁명 세력들이 은밀한 반란을 획책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마데로는 임시정부와 사파타군의 충돌을 막기 위해 측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8월 18일 모델로스를 전격 방문하였다. 마데로의 중재로 사파타는 농민군을 해산하는데 동의했고 무장해제가 완료될 때까지 정부군이 모델로스에 주둔하며,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주지사를 선출하고, 사파타와 농민군을 총사면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Cumberland, 1988: 206). 양자간의 믿음이 회복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주지사 까레온은 사파타군의 무장해제 약속은 속임수이며 선제 공격의 징후까지 보인다면 정부군의 증원을 요청했다. 8월 30일 정부군의 공격이 개시되고 모델로스 혁명은 다시 시작되었다. 크게 실망한 마데로는 이 모든 것이 우에르타의 음모라고 생각했다. 협상과 휴전의 가능성이 사라지자 사파타는 멕시코 시티로 향하는 길목인 밀빠 알타(Milpa Alta)를 점령하여 정부군을 압박하였다. 결국 마데로의 요구로 우에르타는 해임되었다. 우에르타의 반역은 여기서

이미 잉태되었다. 11월 6일 마테로는 대통령에 취임하였고 새로운 협상이 시작되었다. 사파타는 마테로에게 주지사를 사임시키고 새로운 주지사를 임명할 것과 토지개혁법을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했고 반대로 마테로는 선결조건으로 사파타군의 무조건적인 무장해제를 주장하였다(Krauze, 1987: 63).

결국 사파타의 결정은 새로운 혁명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몬파노와 함께 아얄라 마을에서 그들이 오래 전부터 생각해 왔던 그들의 혁명을 준비하였다. 아얄라 강령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마테로 정부에 대한 불신임이고 다른 하나는 토지개혁의 약속이었다.⁹⁾

아얄라 강령의 시작은 마테로에 대한 부정이다. 사파타는 마테로의 혁명 계획에 찬동하여 혁명에 참여했지만 그의 유약함과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혁명이 준수될 수 없어 새로운 혁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마테로를 대신하여 파스쿠알 오로스코를 혁명 지도자로 내세우고 마테로 정부를 타도하고 구체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타협이나 화해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반역과 배반은 사파타에게 뿐만 아니라 모렐로스의 모든 농민들이 가장 경계했던 존재였다. 외지인들과 외부 권력에 의한 배반과 수탈의 역사는 모렐로스의 역사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마테로의 배신으로 태어난 아얄라 강령의 고갱이는 토지 소유권의 회복이었다. 6-9조까지의 내용은 디아스 독재의 비호 아래 아센다도, 과학과 관료, 카시케에 의해 강탈된 토지, 산, 물에 대한 권리를 원주인에게 환원할 것이며 대농장 토지의 수용과 물수에 대한 조치를 비교적 상세하게 정해 놓고 있다. 아얄라 강령은 멕시코 역사에서 간단없이 계속되어온 토지개혁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자 했던 최초의 몸짓이었다.¹⁰⁾

요약컨대 아얄라 강령의 내용은 인과적 서술이다. 이에 의하면 마

9) 혁명강령 전문은 Womack, 1969: 394-397 참조.

10) 아얄라 강령 이전 토지개혁을 언급한 것은 1906년 멕시코자유당의 사회개혁계획이 유일하다. 그러나 총 52개 조항 중 다수는 헌법개정과 노사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토지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개괄적 언급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정도이다 (Hernández Padilla, 1984: 220-241).

대로 정부는 무능과 배신 때문에 부정되었고 따라서 새로운 혁명은 필연적이며 이 새로운 투쟁은 유약함과 배반으로 시행되지 못한 토지개혁을 우선적으로 실현한다는 것이었다.

이념적으로 아얄라 강령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급진사상의 수용이다. 특히 부분적이긴 하지만 플로레스 마곤이 중심이 된 무정부주의의 흔적이 두드러진다. 아얄라 강령의 “자유, 정의, 법”이라는 모토는 급진적 자유주의자들의 “개혁, 정의, 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마도 사파타와 몬따뇨 등 사파타 지도부가 탐독하였던 무정부주의 기관지 격인 지하신문 ‘레헤네라시온’(Regeneración, 부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Womack, 1969: 391).

이와 함께 아얄라 강령은 다른 혁명 프로그램들과 대비할 때 과거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결코 그것과 유리되지 않는 독창성을 보여준다. 아얄라 강령의 고유성을 대표하는 것은 토지개혁이었다. 특히 토지개혁의 진로와 방향에 대한 7조와 8조는 이전의 어떤 선언이나 강령에서도 전례가 없었던 것이었다. 또 아얄라 플랜은 과거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수많은 혁명 강령들은 내일의 권력을 위해 오늘의 혁명을 얘기했을 뿐이지 그 어떤 혁명강령도 아얄라 강령이 적시한 후아레스와 토지수탈의 역사를 성찰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른 혁명들이 오늘에서 내일을 향하고 있었다면 아얄라 강령은 오늘에서 과거를 바라보았던 것이다.

거침없고 단호했던 사파타는 기실 모렐로스의 희망이 피흘림 없이 이루어지길 원했다. 그 최초의 가능성은 마데로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모렐로스의 봉기가 마데로 혁명을 부정하게 된 것은 토지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바라던 사파타혁명의 인내를 무너뜨린 일련의 무정부적인 혼란과 스스로 약속한 토지개혁의 급박함과 절대성을 간과했던 ‘혁명적’이지 못한 혁명이 마데로의 태생적인 한계에서 나온 것이었다. 산 루이스 포토시 강령이 멕시코혁명의 봉화였다면 아얄라 강령은 분명 모렐로스의 봉기가 사파타혁명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분수령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마데로 혁명이 완수되면서 다시 사파타혁명이 시작된 것은 멕시코혁명의 비극인 셈이었다.

IV. 사파타혁명의 진로와 운명

1. 비야, 카란사 그리고 사파타

‘자유주의자’ 마데로는 멕시코 민중이 원하는 것은 빵보다는 자유라고 생각했다.¹¹⁾ 그러나 사파타에게 멕시코 농민 특히 그의 해방구였던 모렐로스의 절대 다수는 굶주림에 지친 문맹들이었다. 따라서 그가 선택한 길은 원주민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뺏은 농토의 반환을 요구하는 아얄라 강령이었다.

전쟁이 경과되면서 양측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나는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중간한 이 승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 패한 자들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리, 그리고 내게 복종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나에게 명령하는 승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분개하면서 마데로를 배신자로 규정하였다(Cumberland, 1988: 211). 사파타는 절대적 믿음만을 신봉하는 자였기에 마데로의 농지개혁에 대한 불분명한 자세와 온건파와 잠재적인 반혁명분자들에 대한 미적지근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마데로 주변에서 호시탐탐 멕시코혁명을 되돌리려 했던 반혁명주의자와 아센다도들은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했지 결코 국가적 위험을 염두에 둔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다. 전면전이 개시되면서 모렐로스의 모든 주민은 마데로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간주되었고 마찬가지로 군사기지를 제공하지 않은 모든 대농장은 사파타군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러나 마데로 체제를 무너뜨린 것은 사파타가 아니라 마데로에 의해 사령관으로 임명된 우에르타였다. 마데로를 암살한 우에르타는 사파타에게 요직을 제안하면서 아얄라 강령을 대해 협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사파타는 단호하였다. 사파타에게 마데로는 스스로의 우유부단함으로 반역자가 되었지만 우에르타는 자신의 상관을 배반한

11) 마데로의 ‘순진한’ 자유주의는 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반디아스 캠페인서 그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인상하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자유를 우선시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Felipe Leal, 1987: 114).

‘진짜’ 반역자였다. 게다가 우에르타는 모렐로스 봉기 진압군의 우두머리였기에 애당초 협상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디아스의 장군에서, 마데로의 심복으로, 그리고 다시 마데로를 암살하고 권좌를 움켜쥔 우에르타는 말 그대로 혁명이 낳은 역사적 ‘부작용’이었다.¹²⁾ 사파타는 아얄라 강령에 동조하는 인접 지역의 혁명세력들로 병력을 보강하여 1913년 10월 중남부해방군(Ejército Libertador del Centro y del Sur)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아얄라 강령에서 혁명지도자로 추대했던 오로스코가 우에르타 정부를 인정하자 자신을 혁명지도자로 선포하였다. 멕시코의 다른 곳에서도 반 우에르타 전선이 형성되었다. 치와와주의 베누스티아노 카란사, 판초 비야 그리고 알바로 오브레곤 등이 반우에르타 투쟁에 합류했다.

정부군의 진압 작전은 무자비했고 이는 오히려 사파타군에게 도움이 되었다. 마데로 정부와 마찬가지로 우에르타 정부 역시 재식민화(recolonización)¹³⁾작전에 충실하였다. 정부군의 공격으로부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파타가 그들의 수호자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파타혁명에 합류하였다. 1914년 들어 사파타군의 공세가 강화되었고 남으로는 사파타에게 북쪽에서는 비야, 카란사, 오브레곤에 의해 협공 당하고 있던 우에르타는 그해 7월 디아스가 탔던 그 이삿방가(Ypiranga)호에 몸을 싣고 멕시코를 떠났다.

우에르타 정부가 무너지고 이른바 반 우에르타 전선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비록 이들이 우에르타 반동정부를 몰아내기 위해 함께 투쟁하였다곤 하지만 이들간의 연대는 불가능해 보였다.

비야와 그의 군대는 거칠고, 제 멋대로 이며, 의식도 없었고 지나치게 호전적이었다. 마부, 도망친 페온, 소작인, 잠상인들로 구성된

12) 전세가 불리해지자 디아스 정부는 정부군을 대도시로 집결시켜 거점을 지켜내는 수세적 전술을 펼쳤다. 디아스 체제가 붕괴한 후 멕시코시티를 비롯한 일부 대도시에 모여있던 이들 정부군은 해체되지 않았고 나중에는 오히려 마데로 정부군에 편입되어 향후 멕시코혁명에서 ‘예상치 못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대표가 바로 우에르타였다.

13) 이 작전은 사파타군의 잠재적 지원자이며 은신기지인 마을의 주민을 정부군 휘하의 수용소로 강제로 소개시키고 사령부에서 기동대를 파견하여 텅 빈 마을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적으로 간주하여 공격하는 것이었다. 때때로 마을을 불질러 초토화시키기도 했다(Womack, 1969: 135).

비아군은 혁명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 부족해 보였다. 비야 자신은 불규칙성과 변칙의 전형이었다. 반면 카란사군은 공식적인 정통성을 중시하였다. 비야와 비교하면 이들은 진지하고 사려가 깊었다. 이들의 혁명 비전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제도적 개혁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사파타혁명은 비야와 마찬가지로 대중적이긴 했지만 공식성은 크게 중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렐로스 농민들의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었고 점차 명확한 혁명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이 일은 소포 이 가마로 대표되는 일련의 무정부노조주의적 이념가들에게 주어졌고 이들은 사파타혁명에 동참하여 ‘토지와 자유’라는 혁명의 이념적 기초를 공고화시켰다(Womack, 1969: 189-190).

예상대로 가장 재빨리 움직인 것은 카란사였다. 그는 혁명동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1914년 8월 20일 스스로 멕시코의 통치자임을 선포해 버렸다. 사파타는 아얄라 강령에 의해 구성된 정부만이 토지 개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아얄라 강령을 ‘콤마’하나 바꾸지 말고 수락할 것을 요구했다. 10월 10일에는 사파타, 비야 그리고 카란사의 대표가 아구아스칼리엔테스(Aguascalientes)에서 반우에르타 투쟁을 결산하고 카란사정부에 대한 입장을 협의하기 위해 회담을 개최되었다.¹⁴⁾ 여기서 아얄라 강령의 인정, 카란사의 대통령직 중지, 임시대통령의 임명, 디아스와 우에르타 각료의 재산 몰수, 대토지 소유의 해체 등이 합의되었다. 이제 카란사가 행동을 취할 차례가 되었다. 사파타와 비야 군을 멕시코시티에서 상대하는 것이 힘겹다는 것을 간파한 카란사는 수도와 적당한 거리에 있고 일이 잘 못 되었을 때 신속하게 도피할 수 있는 베라쿠루스로 정부를 옮겼다. 이제 혁명은 사파타-비아 대 카란사간의 대립구도가 되었고 두 혁명 지도자는 12월 소치밀코 협약(Pacto de Xochimilco)¹⁵⁾을 체결하고 이듬해

14) 이 회담에 사파타 대표는 나중에 참가하였다. 오브레곤이 카란사 측 대표로 참석했으나 카란사 정부가 불 인정된 것은 혁명의 혼란, 비야파의 독세, 혁명세력간의 복잡한 관계 등 여러 이유 때문이었다. 이 회담의 우여곡절에 대한 자세한 참조는 백종국, 2000: 308-314.

15) 소치밀코 협약의 주요 내용은 1. 비야의 북부군단과 사파타의 중남부해방군은 군사적으로 연합한다. 2. 북부군단은 아얄라 강령과 토지개혁을 인정한다. 3. 비야군은 사파타군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한다. 4. 혁명이 완수되면 민간인대통령을 선출한다

1월 사파타-비야 연합군은 멕시코시티에 입성하였다.

사파타와 비야의 협약은 반역되지 않았으나 비야군이 카란사군의 오브레곤에게 패퇴함으로써 완수되지 못했다. 비야군을 격퇴한 카란사 정부는 사파타혁명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초토화전략과 사면령의 양면작전이 실시되었다. 무자비한 살상은 물론이고 모든 공공자원(심지어 정원의 벤치까지)은 몰수되어 카란사군 본영으로 보내졌다. 사파타군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고갈시키는 총공세로 1915년 10월 카란사의 또 다른 사령관 빠블로 곤잘레스(Pablo González)는 멕시코시티를 탈환하였고 사파타군은 모렐로스로 후퇴하였다. 곧이어 미국 윌슨 대통령은 카란사 정부를 멕시코의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

2. 지방 혁명의 성공

사파타혁명은 근본적으로 방어적이었고 회귀적이었다. 진보라는 미명 하에 주도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항하여 원주민 문화를 지켜낸다는 것은 과거에 더 근접해 있었고 따라서 이들은 일종의 ‘보수적 반동’을 꿈꾸고 있었다. 토지를 공유하는 자유로운 마을을 복원시킨다는 것, 즉 광의의 원주민 문화를 방어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절대적인 소명이었다(Knight, 1986: 355).

모렐로스에서 진행된 혁명사업은 사파타혁명이 무엇을 지향하였는가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준 것에 다름 아니었다. 특히 사파타혁명군이 모렐로스를 중심으로 그 영향력을 확고히 했던 1914-1916년 사파타혁명 사업은 순조로이 진행되었다.

혁명은 모렐로스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거의 모든 아센다도들이 도망하였고 혼란 속에서도 나름의 평화가 유지됐다. 무니시피오 단위의 지역적이고 직접적인 민주주의가 실시되었다. 아얄라 강

는 것이었다. 특히 토지개혁에 대해서 사파타는 원주민 공동체에 빼앗긴 토지를 돌려주는 것을 근간으로 보았고 비야는 페온과 소작인 병사들에게 아시엔다를 분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토지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다(Córdova, 1990: 144).

령에 따라 비밀 투표를 통해 헤노베보 델 라 오(Genovevo de la O)가 임시 주지사로 선출되었고 이후 로렌소 바스캐스가 그를 이었다. 사파타혁명군이 몰수한 대농장의 토지는 주정부에 위임되어 적절한 과정을 거쳐 분배되었고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엄격히 통제되었다. 사파타가 간혹 혁명군과 주정부간에, 또는 마을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최고 판관(juez supremo)으로 개입하긴 했지만 그 역시 아네네꾸일꼬 마을 위원회의 위원장인 동시에 중남부 해방군의 총사령관일 뿐이었다. 사파타농민군은 단지 '마을 공동체들의 무력 결합체'(liga armada de comunidades)일 뿐이었고 마을의 치안을 담당하는 정도였다(Womack, 1969: 221-222).

토지분배는 각 마을의 용도와 관습에 따라 진행되었다. 농지개혁은 빨라폭스의 지도하에 국립농업학교(Escuela Nacional de Agricultura) 출신의 일단의 청년 농학도로 구성된 농지개혁위원회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들에게는 사무실과 숙소가 제공되었고 당시 원주민 공동체가 식민시기부터 간직하고 있던 토지대장과 마을 노인들의 의견을 토대로 수개월에 걸쳐 토지를 구획하였다. 이렇게 해서 토지 지도가 복원되었고 농업은행, 학교, 계당공장들이 세워졌다. 만약 마을간에 문제가 생기면 마을의 혁명위원회가 소집되어 문제를 해결하였다(Ulloa, 1988: 1145; Krauze, 1987: 96). 또 모델로스에 세워진 농업은행은 멕시코 최초의 농업신용조직이었다. 농지개혁위원회가 구성되고 사파타가 한 일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과 불순한 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뿐이었고 모델로스의 개혁은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진행되었다.

1915-1916년 동안은 일련의 개혁적 법률들이 각 혁명세력간에 경쟁적으로 발표되었던 시기였다. 이는 각 혁명세력, 특히 사파타와 카란사 혁명간의 대립이 어느 정도 치열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모델로스에서는 사파타 휘하의 루이스 수비리아, 마누엘 빨라폭스, 오델리오 몬파뇨, 미겔 멘도사 로페스, 헤나로 아메스꾸아 등이 참여하여 일련의 개혁입법들을 제정하였다. 1915년 10월 훗날 혁명헌법 27조의 기초가 된 노동사고법과 농지법이 발표되었

다. 이 법에서는 토지소유에 있어 마을 단위의 법인체 인정, 기후와 토질에 따른 토지 소유상한의 설정, 2년 무경작 토지의 몰수 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11월에는 공무원법, 노동법, 국가구조법, 교육일반화법이 연이어 제정되었다. 이어 사법행정법과 사범학교설립법이 만들어졌고 1916년에는 언론검열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쇄법, 총선거법 등이 발표되었다. 특히 총선거 법에는 직선과 총선을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 삼았고 이외에도 식민법과 초등교육법이 공포되었고 9월에는 지방(무니시피오)법이 발표되었는데 이 법은 기본적인 형태의 지방자치체를 담고 있었다(Krauze, 1987: 106-108).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모렐로스 마을들이 과거의 전통과 일상을 회복한 것이었다. 모렐로스의 경작지에는 사탕수수와 쌀 대신에 그들의 주식인 푸리홀과 옥수수가 재배되었고 입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조차도 변화의 대상이었다.¹⁶⁾ 모렐로스 일상의 변화는 말 그대로復古的이었다. 때로는 사파타마저도 놀랄 정도로 모렐로스는 이전의 삶을 견고하게 복원시켰다.

한때 사파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탕수수 산업의 재편 노력이 실패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는 제당산업을 통해 농민들이 생계형 농업에서 상업농으로 전환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의 생각은 되찾은 공동체 토지에 옥수수나 푸리홀 대신에 사탕수수를 경작하여 농민들의 경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대농장의 제당소가 아닌 공장으로서의 제당소는 농민들이 경작한 사탕수수를 제당하여 판매하고 농민들은 여기서 얻은 수익의 일부를 공장에 지불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면 제당공장들간의 경쟁이 생겨 농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또는 협동조합 형태의 제당소를 농민들이 직접 설립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16) 농민들의 흰 바지저고리가 모렐로스의 '유니폼'이 되었고 말씨도 마찬가지로 되었다. 평등과 친밀함의 표시인 *tutear*(당신(Ud.) 대신에 너(Tú)를 사용하는 어법)가 일반화되었고 속어와 비어의 사용이 많아졌다. *amigo*(친구)대신에 *vale, pobre*(가난한) 대신에 *probe, somos*(우리는 --이다) 대신에 *semos, fue*(그는 --이었다) 대신에 *juc*가 사용되었다. 모렐로스를 방문한 외지인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런 말씨를 알아두지 않으면 안되었다. 고급술은 사라지고 일종의 소주인 *aguardiente*와 맥주를 즐겨 마셨고 두께와 마상경기가 성행하였다(Womack, 1969: 237).

(Krauze, 1987: 97).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사탕수수 경작은 대규모의 경작지와 다양한 농기구 그리고 꽤 높은 경작 기술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또 모델로스 농민들에게 “옥수수는 생명”이었고 수익성이란 것은 그리 우선적인 가치가 아니었다. 회복된 농지에서 정복자들의 작물인 사탕수수는 사라졌고 매소아메리카의 신성한 알곡이 재배되었다. 이는 아마 사파타 혁명 사업의 유일한 실패였을 것이다.

비록 합법 정부로 카란사를 인정하긴 했지만 미국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멕시코내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사파타를 만나본 미국 공사는 사파타가 통치하던 지역의 질서를 입헌주의자들이 지배하던 지역의 혼란과 대비했으며 진정한 사회 혁명은 사파타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 사파타는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아마도 멕시코 역사상 가장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했다. 사파타혁명은 자치적이고 분권적인 공동체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그것은 원주민 전통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토지는 분배되었고 농업은 회복되어 성장하였고 믿음의 정치가 복원되었다(푸엔테스, 1997: 376-377). 모든 일상은 법적 강제가 아닌 자치에 의해 유지되었다. 최초로 멕시코인들 스스로 숙명주의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의 민주적 통치를 이루어 냈다.

3. 혁명의 좌절

사파타혁명의 그림자는 사파타 지도부 내에서부터 드리우기 시작했다. 1914년 안토니오 바로나가 펠리페 내리를 사소한 말다툼 끝에 살해하는 일이 생겼고 로렌소 바스게스는 전투 중 배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혁명군에서 축출되었다. 비록 최후 순간까지 결백을 주장했지만 사파타의 대부 몬타뇨도 여기에 연루된 혐의로 1917년 5월 처형되었다. 사파티즘 내의 분열은 사적인 감정, 이념적 성향의 차이 그리고 모델로스 출신과 나중에 사파티즘에 합류한 타지방 출신 간의 갈등 등 그 동기는 다양했다. 특히 1917년 카란사 정부가 혁명

헌법을 제정한 후 카란사가 헌법에서 농지개혁을 인정하였으니 무장투쟁을 중단하자고 주장과 이를 반대하는 입장간의 대립이 더욱 깊어졌다(Ulloa, 1988: 1169-1170). 게다가 “사파타가 비록 모렐로스를 통치하고 있었지만 그의 왕국은 이미 금이 가고 있었다”. 전쟁으로 파괴된 마을을 재건하고 버려진 농토에서 경작을 회복하는 것은 수월하지 않았고 모렐로스 정부를 꾸리기 위한 세수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다(Parkinson, 1975: 228).

카란사 정부의 공세와 위협은 사파타혁명의 해체를 재촉한 외래요인이었다. 1915년 카란사 정부의 사면령으로 일부 사파타군이 무장을 해제하였고 1916년 1월 카란사 정부는 국립농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파타혁명에서의 이탈을 충동하였다. 이를 통해 카란사 정부는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고 농민반란을 무력화시키면서 새로운 정통성을 획득하고자 했다(임상래, 1996: 150). 1916년 6월 사령부가 함락되어 사파타군은 다시 게릴라전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수세적 상황에 있긴 했지만 1916년 말 사파타군 진영에는 약 5000명 정도의 병력이 남아있었다. 11월부터 카란사군의 회유와 강압으로부터 모렐로스 주민들의 혁명정신을 재무장시킬 목적으로 ‘선전과 통합을 위한 상담센터’라는 특별기구가 조직되기도 했다.

1917년에 들어오면서 비야군을 격퇴한 카란사 군대는 사파타군을 고립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게다가 사파타를 제외한 채 제한의회가 구성되어 혁명헌법이 제정되었고 카란사는 멕시코의 합헌적인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사파타혁명은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형국이 되어 버렸다. 비록 1918년 초 모렐로스의 일부 도시들을 탈환하긴 했지만 사파타즘은 현저히 위축되었다. 사파타는 동맹을 찾기 시작하였다. 한때 미국과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카란사를 반대하는 다른 혁명세력과의 연대였다. 사파타즘 내에서도 외부세력과의 연대를 주장하는 마가냐의 온건파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1918년 8월 사파타는 오브레곤에게 연합을 제의했다. 비록 카란사군의 총사령관이긴 했지만 제한의회에서 카란사의 온건노선을 반대했을 정도로 오브레곤은 진보적인 인물이

었다. 그러나 그는 사파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다 1차대전보다 더 무서웠다는 스페인 독감이 모델로스를 엄습하여 사파타군의 전력은 더욱 약화되었다.

사파타는 자신이 그렇게도 경계하고 중요했던 반역 때문에 최후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죽음은 하나의 아이러니였다. 사파타혁명군을 진압하는 임무는 빠블로 곤잘레스에게 맡겨졌다. 1919년 3월 어느 날 헤수스 구아하르도(Jesús Guajardo) 대령은 만취가 되어 사파타군에 대한 공격 명령을 어겨 처벌을 받게 되었다. 사파타는 구아하르도에게 투항을 권유하는 밀서를 보냈다. 그러나 이 편지는 도중에 곤잘레스에게 발각되었고 곤잘레스는 이것을 역이용하여 구아하르도를 거짓으로 사파타에게 투항하게 하였다. 구아하르도는 충성의 증거로 사파타군 반역자들을 처형하였고 그를 신임한 사파타는 종마를 선물하였다. 사파타의 신임을 확신한 구아하르도는 사파타에게 12000정의 병기들을 치나메카 아시엔다에서 넘겨주겠다고 약속했고 순진하게도 이를 온전히 믿은 사파타는 1919년 4월 10일 1시 45분 경 단지 10여명의 군사만을 데리고 아시엔다에 도착했다. 그가 아시엔다를 들어설 때 잠복해 있던 카란사 군의 총격이 개시되었고 이렇게 모델로스의 혁명야는 최후를 맞았다. 이 공로로 훗날 구아하르도는 장군으로 승진하였고 5만 페소의 상금을 받았다(Womack, 1969: 323-325). 사파타가 최후를 맞았던 치나메카는 사파타 농민군이 정부군에게 최초의 승리를 거둔 곳이기도 했으니 이 역시 아이러니였다.

기실 1919년경 사파타군의 병력은 카란사 정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정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란사가 ‘치사한’ 방법으로 사파타를 제거하고자 했던 것은 우선 사파타혁명군의 전세가 크게 약화되어있었긴 했지만 여전히 그는 신출귀몰한 전략가여서 정규전에서 사파타군을 완전히 패퇴시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다 특출한 혁명지도자로 존경받던 오브레곤이 국방장관을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카란사는 사파타와 오브레곤이 손을 잡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의구심을 좀 체 떨칠 수 없었다.¹⁷⁾ 결국 카란

17)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백종국, 2000: 368-378 참조.

사는 덧을 놓기로 작정했고 전세가 불리해져 다급해진 사파타는 결국 그가 그렇게도 불신하고 경계했던 외부자의 간계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사파타가 죽은 후 마가냐가 사파타혁명군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으나 사파타가 없는 사파타혁명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사파타군은 카란사 정부에 투항하거나 아니면 정부군의 공격으로 진압되었고 마가냐, 소또 이 가마, 델 라 오 등은 반카란사 투쟁을 계속하다가 결국 오브레곤파에 흡수되었다. 오브레곤이 대통령이 된 후 모렐로스에서 부분적인 토지개혁을 추진되기도 했지만 사파타의 이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생전에 사파타가 남긴 “이달고 신부처럼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혁명을] 시작한 사람은 끝(완성)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은 그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Krauze, 1987: 123). 완고한 이상주의자 사파타는 ‘정치’가 판을 치는 혁명에서 노련한 현실주의자 카란사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V. 맺는 말

사파타혁명은 모렐로스 혁명이었다. 비옥한 토양, 수도와의 인접성, 풍부한 노동력 등 이 모든 모렐로스의 지리경제학은 멕시코의 다른 어떠한 지역보다도 외부자의 이해와 탐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 이를 완성시키기 위해 역시 외부에서 들어온 사탕수수와 철도는 모렐로스를 아시엔다체제로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원주민들은 대농장의 확대로 일자리와 일거리를 잃어버렸고 마을 공동체는 외부자들의 끊임없는 개입으로 와해되었다. 혁명이 타자에 의한 좌절에 대한 대응의 하나라면 아시엔다로 대표되는 타자에 의한 지배와 독점이 코르테스 이후 400년 간이나 굳건히 이어졌으니 모렐로스의 봉기는 오히려 늦은 것이었다. 사파타혁명은 모렐로스의 지역성에 연원한 혁명일 수밖에 없었다.

모렐로스의 혁명은 복고적-내향적-자폐적인 지방 혁명이었다. 농민

들의 자발적 지지에 기초한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도 사파타혁명이 모렐로스에서 머문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사파타와 농민들은 디아스 독재에서 몸서리쳤던 발전이나 진보를 지향하지 않았고 오히려 과거의 문화와 전통에 따라 원주민 공동체를 복원코자 했다. 이를 위해 사파티즘이 택한 것은 비권력주의였다. 권력을 잡기 위해선 정치를 해야 했고 그 정치란 것은 결국 아네네꾸일꼬와 모렐로스 역사에서 조상 대대로 목격했던 반역과 배반에 다름 아니었다. 따라서 구체제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타협이나 화해도 용인할 수 없었다. 이는 사파타혁명의 정신인 아얄라 강령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또 멕시코 시티를 점령하고도 사파타혁명이 모렐로스를 떠나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권력에 대한 경계 그에 따른 강박적인 도덕 기준은 결국 사파타혁명이 국가 혁명으로 가는 경로를 막아버렸다. 스스로 밖으로 향하는 문을 잠그고 안으로만 향하는 일종의 자폐적(self closed) 혁명이 되고 말았다.

사파타혁명의 절대명제는 ‘땅’이었다. 모든 인간에게 마찬가지로인 것처럼 모렐로스 농민들에게도 땅은 식량과 노동의 원천이었고 그들 삶의 뿌리였다. 그러므로 땅을 파괴한 아시엔다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모렐로스의 뿌리를 찾아낸다는 것, 즉 마을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들에게 대지는 만물의 어머니이며 죽음과 삶을 순환시키는 모태였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땅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원초적 본능이다. 당연히 자유도 평화도 모두 땅에서 나온다고 믿었다. 어머니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었고 미룰 수는 더 더욱 없었다. 멕시코혁명의 두 이상주의자¹⁸⁾ 사파타와 마데로의 간결한 대비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사파타에게 혁명은 ‘땅과 자유’였고 마데로에겐 ‘자유와 땅’이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본원적 욕망

18) 작은 키, 까무잡잡한 얼굴, 팔자형 콧수염, 날카로운 눈 빛, 넓은 챙의 솜brero를 쓴 독특한 용모의 사파타는 ‘순진한’ 이상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했던 행동가였다. 하얀 피부와 유순한 눈빛을 가진 대지주 출신의 마데로는 신비하고 영감주의적인 정치인이었다. 비록 그가 반디아스 혁명에서 놀라운 정치적 감각을 보이긴 했지만 지나칠 정도로 이상적이고 타협적이며 낙관적인 정치 노선으로 혁명을 완수하지 못했다. 사파타가 대중적 이상주의자였다면 마데로는 이상주의적 자유주의자였다. 결국 이 두 ‘인간’은 정치꾼으로 딱 들어맞는 인물이 아니었다.

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나서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파타는 대단한 이론가일 필요가 없었고 오직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데 필요한 능력만을 가진 '순진한' 행동가이면 족했을지도 모른다. 당연히 정치적 수사로 포장된 혁명이나 권력 따위는 그들에게 항상 땅보다 뒷전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사파타혁명이 보여준 지역적 한계, 과거로의 회귀, 전국적 계획의 부재, 국가와 권력에 대한 정치적 인식의 부족 등으로 사파타의 붕기를 [사회]과학적으로 혁명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혁명은 정치적이건 사회적이건 지역을 초월하고 과거로의 복원을 겨냥하지 않으며 정권획득을 일차적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Córdova, 1989: 154). 그러나 이 지방혁명은 역설적으로 분명 혁명적이었고 역사적이었다. 사파타혁명 동안 모렐로스에서 주민들에 의한 자치와 믿음의 정치가 살아났고 원주민들은 토지와 산과 물을 되찾았다. 이 지방 혁명의 성공이 향후 멕시코의 시대정신이 되었다면 이는 더 큰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수 백년 동안 잠복되어 있던 소외와 빈곤 그리고 불평등과 착취의 결집점인 대토지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했던 거대한 몸짓은 멕시코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다고 따라서 카란사나 오브레곤의 중앙 혁명보다 더 혁명적으로 멕시코인들을 움직일 수 있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사파타혁명은 아직 유효한 듯 하다.

참고문헌

- 박구병, 「멕시코혁명기(1910-1920) 사빠따 운동의 성격」, 『서양사연구』(16집), 서울대서양사연구회, 1994.
- 백종국, 『멕시코혁명사』, 한길사, 2000.
- 이성형, 「멕시코혁명사연구」, 『이베로아메리카연구』(창간호), 서울대스페인중남미연구소, 1990.
- 임상래, 「멕시코의 토지개혁 정책과 예히도 제도」, 『라틴아메리카연구』(9권 1호),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1996.
- 巢山靖司, 『라틴아메리카 변혁사』(서경원 역), 백산서당, 1985.
- 카를로스 푸엔테스,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서성철 역), 까치, 1997.
- Aguirre, Mariano, *Historia de América Latin, América antes del descubrimiento*, Madrid: Editorial Hernando, 1978
- Ariaza, Luis, *Historia de la Casa del Obrero Mundial*, Mexico: Los Talleres Gráficos del Sindicato de Obreros y Artesanos de la Industria Cervecera y Conexas de la Ciudad de Orizaba, 1963.
- Cockcroft, James, *Precursores intelectuales de la revolución mexicana*, Mexico: Siglo XXI, 1990.
- Córdova, Arnaldo, *La Ideología de la Revolución Mexicana*, Mexico: Era, 1989.
- Cumberland, Charles, *Madero y la Revolución Mexicana*, Mexico: Siglo XXI, 1988.
- Davies, Nigel, *Los Antiguos Reinos de México*, Me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95,
- Felipe Leal, Juan & José Villaseñor, *En la revolución 1910-1917*(La clase obrera en la historia de México: vol. 5), Mexico: Siglo XXI, 1988.
- Florescano, Enrique, et. al, *De la colonia al imperio*(La clase obrera en la historia de México: vol. 1), Mexico: Siglo XXI, 1980.

- Gibson, Charles, *Los aztecas bajo el dominio español 1519-1810*, Mexico: Siglo XXI, 1986.
- González, Luis, "El crimen de Zapata", *Nexos*, no. 285(2001. 9)
- Heather Fowler-Salamini, "The Boom In Regional Studies Of The Mexican Revolution: Where Is It Leading?",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Vol. 28, No.2)
- Hernández Chávez, Alicia, *Anenecuilco: memoria y vida de un pueblo*, Mexico: Colegio de Mexico, 1991.
- Hernández Padilla, Salvador, *El magonismo: Historia de una pasión libertaria 1900/1922*, México: Era, 1984.
- Johnson, William Weber, *México heróico El violento nacimiento de una nación moderna*, Barcelona: Plaza & Janes, 1970.
- Katz, Friedrich, "México: la restauración de la República y el Porfiriato, 1867-1910", Leslie Bethell(ed), *Historia de América Latina 9. México, América Central y el Caribe, c. 1870-193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Knight, Alan, *La Revolución Mexicana, Del porfiriato al nuevo régimen constitucional*(vol. 1), Grijalbo, 1986.
- Konetzke, Ricardo, *América Latina II La época colonial*, Madrid: Siglo XXI, 1972.
- Krauze, Enrique, *Biografía del poder Emiliano Zapata*, Mexico: Fondo Cultura Económica, 1987.
- Lim, Sangrae, *El movimiento obrero en la revolución mexicana(La Casa del Obrero Mundial)*, Mexico: Universidad de las Américas, 1991.
- Meyer, Lorenzo, "El primer tramo del camino", *Historia General de México(vol.2)*, Mexico; El Colegio de México, 1976.
- Parkinson, Roger, *Zapata*, N.Y: Stein and Day/Publishers, 1975.
- Pineda Gómez, Francisco, *La irrupción zapatisata*. 1911, Mexico; Era, 1997.

Silva Herzog, Jesús, *Trayectoria ideológica de la Revolución Mexicana*, Me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84.

_____, *Breve Historia de la Revolución Mexicana, Los antecedentes y la etapa maderista*, Me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89.

Soustelle, Jacques, *El universo de los aztecas*, Me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92.

Ulloa, Berta, "La lucha armada(1911-1920)", *Historia General de México(vol.2)*, Mexico: El Colegio de México, 1988.

Womack, John, *Zapata y la revolución Mexicana*, Mexico; Siglo XXI, 1969.

Zavala, Silvio, *Apuntes de historia nacional 1808-1974*, Me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95.

Enciclopedia de México, Secretaría de Educación Pública, Mexico, 1987.

INEGI: Morelos(<http://www.inegi.gob.mx/entidades/espanol/fmor.html>), 2001. 10

Nexos, no. 285(2001, 9)

Abstract

La Revolución de Zapata: La revolución local, basada en Morelos

Lim, Sang-Rae

La Revolución de Zapata es la de Morelos dado que este estado era el lugar más representativo y simbólico de las haciendas mexicanas. La tierra fértil, la cercanía geográfica a la capital, y abundante mano de obra barata bastaron para llamar la atención de todos los españoles acaudalados. Por lo tanto, los indígenas fueron perdiendo el espacio para trabajar, y sus aldeas y comunidades se empezaron a desarticular. La Revolución de Zapata debe ser el local de Morelos.

Por otro lado, la Revolución que se dio en Morelos fue un movimiento popular para restaurarse y para estar cerrada por si sola(self closed), de modo que ella se quedaba en Morelos, teniendo gran fuerza bélica del campesinado mexicano. Asimismo, la Revolución de Zapata es la de la tierra. Tanto para Zapata como para los campesinos indígenas, la hacienda era el enemigo que debía ser derrocado para rescatar su antigua comunidad, es decir, el modo de vivir de sus antepasados.

Desde el punto de vista 'científico', la Revolución de Zapata no es una revolución ya que ella se limita a una provincia, se encaminaba al pasado y le faltó el programa o plan a nivel nacional. Sin embargo, esta revolución local es más revolucionaria e histórica que otras por que demostró, por primera vez en la historia mexicana, la viabilidad de poder recuperar o reconquistar los anhelos y sueños de los mexicanos.

En este aspecto la Revolución de Zapata sigue siendo vigente en la vida de México.

Key words : 멕시코혁명(Mexican Revolution), 농민운동(Peasant Movement), 사파타(Zapata), 멕시코현대사(Mexican History), 토지개혁(Agrarian reform)